한국어의 총칭표현들

전 영철(한국외국어대학교)
ycjun@hufs.ac.kr

1. 서론

1.1. 총칭명사구와 총칭문

자연언어에는 두 가지의 총칭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칭명사구(generic NPs)와 총칭문(generic sentences)이 그것이다. 총칭명사구는 종류에 대한 지시(reference to a kind)를 수행하므로 종류-지시 명사구(kind-referring NPs)라고도 한다. 이에 상대되는 개념은 낱개체-지시 명사구(object-referring NPs)이다. 총칭문(generic sentences)은 일반적 속성(general property)을 표현하는 문장을 일컬으며 특성문(characterizing sentences)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개별적인 혹은 특정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은 개별문(particular sentences)이라고 한다.

총칭명사구와 총칭문은 별개의 현상이다. 총칭명사구가 총칭문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개별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낱개체-지시 명사구가 총칭문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1) a. The potato is highly digestible.
b. The potato was first cultivated in South America.
c. John smokes a cigar after dinner.

따라서 총칭문을 총칭명사구에 관련된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삼부구조: 총칭표현들의 의미표상

총칭문의 의미표상으로는 삼부구조가 널리 사용된다. 이는 Carlson(1989)의 관계분석(Relational Analysis)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이다. 이는 Carlson(1977) 등에서 주장한 단가적 분석(Monadic Analysis)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2)는 총칭문으로 (3a)와 (3b)처럼 두 가지 해석을 받는데 이것을 삼부구조를 이용하여 표상해보면 (3a')과 (3b')으로 나타난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둘 중에서 (3b)가 (3a)보다 더 선호되는 해석이다.

(2) Typhoons arise in this part of the Pacific.

(3) a. Typhoons in general have a common origin in this part of the Pacific.
a'. **GEN**x[**typhoon**(x)]∃y[**this.part.of.the.Pacific**(y) & **arise.in**(x,y)]
b. There arise typhoons in this part of the Pacific.
b'. **GEN**x[**this.part.of.the.Pacific**(x)]∃y[**typhoon**(y) & **arise.in**(y,x)]

그런데 단가적 분석은 (2)를 (4)와 같이 분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덜 선호적인 (3a)의 해석에 해당할 뿐이어서 선호적인 해석 (3b)를 표상하지 못한다.

(4) **Gn(arise.in.this.part.of.the.Pacific)(typhoons)**[1)]

단가적 분석이 이러한 한계를 가지는 것은 총칭문의 구조를 주어-술어의 단일한 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총칭문 (2)는 주어에 대한 일반적 속성의 보고--(3a)의 해석--뿐 만 아니라 장소부사어에 대한 일반적 속성의 보고--(3b)의 해석--도 가능한데, 단가적 분석은 전자만을 포착할 뿐이다. 이에 반해 삼부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은 (3)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술어이외의 관계도 포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총칭문의 해석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다.

총칭명사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종류를 지시하는 까닭에 단일한 방식으로 의미론적 표상을 부여하기가 무척 힘들다. Krifka 외(1995: 78)은 총칭명사구의 가능한 해석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를 제시한다.

(5) a. 종류 술어 해석(kind predicate interpretation)
The dodo is extinct.
b. 집합적 속성 해석(collective property interpretation)
Linguists have more than 8,000 books in print.
c. 평균 속성 해석(average property interpretation)
The American family contains 2.3 children.
d. 특성적 속성 해석(characterizing property interpretation)
The potato contains vitamin C.
e. 변별적 특성 해석(distinguishing property interpretation)
Dutchmen are good sailors.
f. 대표 낱개체 해석(representative object interpretation)
Be quite--the lion is roaming about!
g. 전위적 해석(avant-garde interpretation)
Man set foot on the Moon in 1969.
h. 내적 비교 해석(internal comparison interpretation)
The wolves are getting bigger as we travel north.

1) **Gn** 운용자는 보통의 서술어를 논항으로 취해서 특성적 서술어(characterizing predicate)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특성적 서술어가 주어와 결합하여 총칭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중에서 총칭명사구가 특성적 속성 해석으로 총칭문에 나타날 때 삼부구조를 이용하여 총칭명사구에 적절하게 의미론적 표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이다.

(6) a. The lion roars when it smells food.
b. **GEN**x[**lion**(x) & **smell.food**(x,s)][**roar**(x,s)]

2. 한국어의 총칭표현들의 특성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언급되는 결과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에서 총칭표현들이 실현될 때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Diesing(1992)은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는 총칭문에만 나타나는 반면에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는 총칭문 뿐만 아니라 개별문에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7) a. Firemen are altruistic. **GEN**x[**firemen**(x)][**altruistic**(x)]
b. Firemen are [available]$_F$. **GEN**x[**firemen**(x)][**available**(x)]
c. [Firemen]$_F$ are available. ∃x[**firemen**(x) & **available**(x)]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8) a. 소방수는 헌신적이다.
b. 소방수는 가용하다.
c. 소방수가 가용하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화제표지 '는'과 주격표지 '가'의 실현양상이다. '는'은 총칭문 및 총칭명사구와 더불어 실현되는 반면에 '가'는 개별문 및 존재적 명사구와 함께 실현된다.

이러한 연관성은 다음의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9) a. Typhoons arise in [this]$_F$ part of the Pacific.
a'. **GEN**x[**typhoon**(x)]∃y[**this.part.of.the.Pacific**(y) & **arise.in**(x,y)]
b. [Typhoons]$_F$ arise in this part of the Pacific.
b'. **GEN**x[**this.part.of.the.Pacific**(x)]∃y[**typhoon**(y) & **arise.in**(y,x)]

(10) a. 태풍은 태평양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b. 태평양 이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한다.

(2)는 초점의 차이에 따라 (9a')과 (9b')의 해석을 가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예문 (10)을 보면 (8)에서 관찰한 연관성이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지들 이외에, 영어의 원형복수(bare plurals)와는 달리 원형단수(bare singulars)가 두드러지게 사용된다든지, 장면 및 개체-층위 술어가 역시 민감하게 작용한다든지 하는 사실들이 지적되어 왔다.

2.1. 원형단수

총칭명사구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어에서는 총칭명사구로 원형복수 및 '정관사+단수명사'가 주로 사용되고, 불어에서는 '정관사+복수명사'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에서는 일본어나 중국어와 비슷하게 원형단수를 주로 쓴다. 복수접미사가 붙은 원형복수는 총칭명사구라기 보다는 비한정의 복수 개체들을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11) a. 소방수들은 가용하다.
b. 태풍들은 태평양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2.2. 주격표지 '가' vs. 화제표지 '는'

이 표지들에 대한 소위 양화적 접근의 입장에서는 총칭문과 총칭명사구의 뚜렷한 구별이 없이 총칭문은 총칭명사구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며 총칭명사구에는 화제표지 '는'이 붙는 것으로 파악한다. 화제표지 '는'은 총칭적인 힘(generic force)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총칭문과 총칭명사구의 총칭적 의미는 '는'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주격표지 '가'는 존재적 힘(existential force)을 가지고 있어서 동반하는 명사구와 문장에 존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이영헌 1984, 이정민 1989, 1992, 이익환 1992, 곽은주 2002 등).

이에 반대하는 입장들로는 강범모(1994), 이성범(1994), 이현우(1995), 전영철(1997) 등을 들 수 있겠다.

강범모(1994): 화제표지는 총칭성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이성범(1994): 원형명사구가 총칭적 혹은 존재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보통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격표지가 양화함수표현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명사구 자체의 유형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전영철(1997): '는'이 총칭명사구 뿐만 아니라 낱개체지시 명사구와도 쓰이고, '가'가 낱개체지시 명사구 이외에 총칭명사구와도 사용된다. '는'이 총칭문 뿐만 아니라 개별문과도 쓰이고, '가'가 개별문 이외에 총칭문과도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는'과 '가'에 대한 양화적 접근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들이 총칭성의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직관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 직관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2.3.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

장면-층위 술어는 일시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반면에 개체-층위 술어는 지속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서술어이다. 그런데 일시적인 속성과 지속적인 속성의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술어가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주적 구별이 반영되는 언어 현상들이 존재하므로 이 구별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언어 현상들 중의 하나가 원형단수의 해석이다.[2)]

(12) a. 우리 반 학생은 착해요.
b. 우리 반 학생은 불고기를 먹어요.
c. 우리 반 학생이 불고기를 먹어요.

(12)의 예문에서 개체-층위 술어 '착해요'와 장면-층위 술어 '불고기를 먹어요'는 비대칭적임을 알 수 있다. '착해요'는 '는'과만 어울리는 반면에 '불고기를 먹어요'는 '는' 뿐만 아니라 '가'와도 어울려 문장을 형성한다.[3)] 그리하여 전자는 원형단수 주어에 대해 총칭적 해석만을 낳는 반면에, 후자는 총칭적 해석(12b) 이외에 존재적 해석(12c)도 가능하다.

총칭문은 보통 어휘특성문(lexical characterizing sentences)과 습관문(habitual sentences)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3) a. Italians know Latin.
b. Italians smoke.

(13b)와 같은 습관문은 일시적인 사건들이 습관적 반복되어 일반적인 속성으로 자리 잡았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시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개별문이 가능하며, 이렇게 관련된 습관문과 개별문의 동사는 형태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3b)에 대응되는 개별문은 'Italians are smoking'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어휘특성문은 일시적인 사건들을 기반으로 한 일반화가 아니라 개체의 특성에 대한 일반화이므로 대응되는 개별문이 결여되어서 (13a)에 대응하는 "Italians are knowing Latin'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휘특성문의 술어는 개체-층위 술어이고 습관문의 술어는 장면-층위 술어이다. Diesing(1992), Kratzer(1995), Krifka 외(1995), Cohen 외(2002) 등에서는 이 두 종류의 총칭문의 삼부구조 분석 시에 한 가지 차이점을 설정한다. 즉, 장면-층위 술어는 상황 논항을 취하므로 습관문의 삼부구조에는 상황 변항이 나타나서 총칭양화사의 결속을 받는 반면에 개체-층위 술어는 상황 논항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어휘특성문의 삼부구조에는 상황 변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3a, b)의 삼부구조는 다음과 같다.

---

2) 개체-층위 술어의 특성에 대해서는 Chierchia(1995) 참조

3) '착해요'도 '가'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이 때의 '가'는 배타적인 초점을 반드시 동반하여 우리가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의 용법을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논문에 나타나는 '는'은 중립적인 화제표지일 뿐이지 대조 초점의 화제표지는 다루지 않는다.

(14) a. **GEN**x[**Italian**(x)][**know.Latin**(x)]
b. **GEN**x,s[**Italian**(x) & **in**(x,s)][**smoke**(x,s)]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낱개체-지시 명사구 주어가 나타날 때 어려움에 부딪힌다.

(15) a. John knows Latin.
b. John smokes.

장면-층위 술어에만 상황 변항이 허용되면 다음과 같은 삼부구조가 부여될 것이다.

(16) a. **#GEN**[**John**][**know.Latin**(**John**)]
b. **GEN**s[**in**(**John**,s)][**smoke**(**John**,s)]

(16a)는 **GEN**이 결속할 변항이 없어서 공허한 양화(vacuous quantification)를 유발하여 허용되지 않게 된다. 반면에 (16b)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따르면 (15b)만이 총칭문일 뿐 (15a)는 총칭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문제가 있다. 총칭문의 정의를 고려해 볼 때 (15b)만을 총칭문이라고 하고 (15a)를 개별문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15b)는 어떤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한 존의 흡연 행위를 보고할 수도 있고 특정한 시공간을 초월한 존의 흡연 습관을 보고하는 것일 수도 있는 반면에 (15a)는 시공간의 변화와 관계없는 존의 특성을 보고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15a)가 더 총칭적인 문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철수는 라틴어를 안다'는 개별문이고, '철수는 담배를 피운다'는 총칭문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직관에 위배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면-층위 술어에만 상황 변항을 설정함으로써 초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3. 한국어 총칭표현들의 의미론적 분석

3.1. 총칭문의 의미표상

장면-층위 술어만이 상황 논항을 가진다는 주장의 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 있다(Kratzer 1995).

(17) a. *When Mary knows French, she knows it well.
b. *Mary often knows French.
c. When Mary speaks French, she speaks it well.

d. Mary often speaks French.

이 문장들은 시공간적 변항(spatio-temporal variable)에 대한 양화를 표현하므로, 그러한 변항을 허용하지 않는 개체-층위의 (17a, b)는 어색한 반면에, 그러한 변항이 존재하는 장면-층위의 (17c, d)는 좋은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e Swart(1991)가 주장하듯이, 이와 동일한 구조에서 어색한 문장이 되는 장면-층위 술어의 예들이 있다.

(18) a. *When Anil dies, his wife usually killed herself.
b. *Anil often dies.

이 문장들은 장면-층위의 술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이 술어가 상황 변항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변항이 일회적인 것이어서 양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개체-층위 술어의 상황 변항도 길지만 단지 일회적이기 때문에 양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4] 이러한 주장은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신축성을 고려해 볼 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주장과는 독립적으로 소위 신데이비드슨(Noedavidsonian) 식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술어는 상황 변항을 취한다(Parsons 1990, Chierchia 1995, Herburger 2000 등). 나아가 Chierchia(1995)는 개체-층위 술어의 상황 변항에는 총칭적 운용자가 작용하여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은 내재적으로 총칭문(Inherent Generics)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면-층위 뿐만 아니라 개체-층위의 술어도 상황 변항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예문 (15)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 (15a)에 대해 수정을 거치면, (15)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삼부구조를 부여받게 된다.

(19) a. **GEN**s[**in**(**John**,s)][**know.Latin**(**John**,s)]
b. **GEN**s[**in**(**John**,s)][**smoke**(**John**,s)]

여기에서는 둘 다 상황 변항 s가 설정되므로 (19a)에서도 **GEN**이 s에 작용하게 되어 모두를 동일하게 총칭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원형복수 주어의 총칭문인 (13)의 문장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삼부구조를 부여할 수 있다.

(20) a. **GEN**x,s[**Italian**(x) & **in**(x,s)][**know.Latin**(x,s)]
b. **GEN**x,s[**Italian**(x) & **in**(x,s)][**smoke**(x,s)]

이제 이 두 문장이 총칭문으로 처리되는 것은 두 문장 모두 상황 변항 s가 **GEN**에 의해 결속을 받

4)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Cohen 외(2002: 138-9) 참조

기 때문으로 처리된다. (14)와 (20)을 비교해 보면 (20)이 더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4)의 삼부구조에서는 어휘특성문과 습관문이 총칭성을 얻는 방식이 다르다. (14a)의 어휘특성문의 경우에는 원형복수를 위해 도입된 개체 변항 x에 **GEN**이 작용하여 총칭문이 되는 것이므로 총칭적 주어의 총칭성에 기대어 문장의 총칭성을 얻는다. 반면에 (14b)의 습관문의 경우는 **GEN**이 상황 변항에 작용함으로써 총칭성을 직접 획득하게 되어 총칭적 주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총칭문은 정의상 어떤 개체(individual)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문장인데, 그러한 속성을 기술하는 서술어와 무관하게 총칭문의 총칭성이 보장되는 (14a)와 같은 분석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한편 개체-층위 술어란 지속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서술어인 점을 고려할 때, 개체-층위의 술어가 총칭문의 총칭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체-층위 술어에 대해 상황 변항을 설정하여 (20a)와 같은 삼부구조를 부여하는 것은 개체-층위 술어와 총칭문과의 이러한 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체-층위 술어에 상황 변항을 상정하는 것은 어휘특성문과 습관문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어휘특성문에 총칭성이 부여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자연스러운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술어에 상황 변항을 설정하는 방식은 총칭문과 총칭명사구를 구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해 준다. 총칭문의 총칭성은 상황 변항에 대한 **GEN**의 작용에 의해 포착할 수 있고, 총칭명사구의 총칭성은 해당 명사구에 의해 도입되는 변항에 대한 **GEN**의 결속에 의해 구별할 수가 있다. 이렇듯 문장과 명사구의 총칭성이 보장되는 절차가 달라짐으로 해서 문장과 명사구의 총칭성 여부에 차이가 나는 문장에 보다 적절한 의미표상을 부여할 수 있다. 즉, 총칭명사구와 총칭문 뿐만 아니라 총칭명사구와 개별문, 낱개체-지시 명사구와 총칭문가 공기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구별되는 삼부구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21) a. 한국인은 일찍 일어난다.
b. **GEN**x,s[**한국인**(x) & **C**(x,s)][**일찍.일어난다**(x,s)]
c. 한국인은 작년 월드컵에 열광했다.
d. **GEN**x[**한국인**(x)]∃s[**작년.월드컵에.열광했다**(x,s)]
e. 민호는 일찍 일어난다.
f. **GEN**s[**C**(**민호**,s)][**일찍.일어난다**(**민호**,s)]

개체 변항 x와 상황 변항 s가 모두 **GEN**에 의해 결속되는 (21a)는 총칭명사구가 총칭문에 나타나는 경우이고, 개체 변항 x만이 **GEN**에 의해 결속되고 상황 변항 s는 존재적 폐쇄(existential closure)에 의해 존재적으로 해석되는 (21c)는 총칭명사구가 개별문에 나타나는 경우이며, 상황 변항만이 **GEN**의 결속을 받는 (21e)는 낱개체-지시 명사구가 총칭문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3.2. 화제구문

전형적인 총칭문에는 보통 화제표지 '는'이 출현하기 때문에 총칭문을 화제구문과 연관지은 논

의가 계속 있어 왔다(이정민 1996, 박철우 외 1996). 영어 총칭문과 관련해서는 Carlson(1989)가 주목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Carlson은 총칭문이란 획일적으로 주어에 대해서만 일반성 혹은 규칙성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라 어떤 관련된 구성성분(related constituent)에 대해 일반성 혹은 규칙성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언급한다. '관련된 구성성분'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를 쓴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구성성분이 총칭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할 것이다. 앞에서 든 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들이 언급되었다.

(22) a. A computer computes the daily weather forecast.
b. Mice squeak loudly if you pound on this wall.
c. It rains 30" a year here.
d. (What happens in the event of a fire?) An alarm sounds.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23) a. 일기예보는 컴퓨터가 계산한다.
b. 이 벽을 치면 쥐가 시끄럽게 찍찍거린다.
c. 여기에는 비가 일년에 3인치 온다.
d. (화재 시에는) 종이 울린다.

(22)에서 밑줄 친 구성성분은 주어가 아니면서 총칭적 서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에서는 이 구성성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일관되게 화제표지 '는'과 함께 나타난다. (22d)처럼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관련된 구성성분'은 반드시 맥락상 존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어에서도 화제표지 '는'이 붙은 표현이 생략될 수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맥락상 존재해야 한다. (23d)에서 '화재 시에는'과 같은 담화 상의 화제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총칭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 그저 '종'이 존재적 해석을 받는 개별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총칭문과 관련된 '는'의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는'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총칭문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화제에 대해 일시적 속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개는 잘 자고 있다.'

Carlson(1989)는 이 '관련된 구성성분'과 일반성을 나타내는 술어와의 관계가 주어-술어 관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언급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미제로 남겨둔다. 한국어에서 총칭문은 암묵적인 화제일지라도 반드시 화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칭문을 화제구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정민(1996)의 'Generic Sentences are Topic Construction'이라는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총칭문이 아닌 화제구문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Topic Constructions and generic sentences are weakly equivalent'라는 주장은 실제보다 강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3.3. 분할표지

앞에서 '는'이 명사구 및 문장의 총칭성에 대한 표지가 아니며, 또한 '가'도 명사구 및 문장의 존재성에 대한 표지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앞의 예문들 중에서 (21c)에서 '는'이 개별문에 나타나고, (21e)에서 '는'이 낱개체-지시 명사구에 쓰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표지들이 양화적인 힘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직관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이것은 (8)과 같이 원형단수 주어를 갖춘 전형적인 예문들에서 '는'은 총칭명사구 및 총칭문과 나타나고 '가'는 존재적 해석의 명사구 및 개별문과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원형단수는 자체의 양화적 힘이 없고 제한자에 할당되면 양화사에 의해 그 양화적 힘을 받게 되고, 작용역에 할당되면 존재적 폐쇄에 의해 존재적 힘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는'이나 '가'가 양화적 힘에 대한 직접적인 표지라기보다는 공기하는 명사구를 제한자와 작용역으로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전영철 1997). 이렇게 되면 '는'과 함께 나타나는 원형단수는 제한자로 할당되어 총칭양화사에 의해 총칭적 힘을 받고, '가'와 함께 나타나는 원형단수는 작용역으로 할당되어 존재적 힘을 받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는'과 '가'를 분할표지로 보게 되면, 원형단수가 총칭적 해석으로 총칭문에서 나타나는 혹은 원형단수가 존재적 해석으로 개별문에서 나타나는 한정된 전형적 예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명사구가 다양하게 실현되는 다른 예문들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는'과 '가'가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예문들을 잘 설명해 준다.

(24) a. 한국인은 일찍 일어난다.
b. **GEN**x,s[**한국인**(x) & **in**(x,s)][**일찍.일어난다**(x,s)]
c. 한국인은 작년 월드컵에 열광했다.
d. **GEN**x[**한국인**(x)]∃s[**작년.월드컵에.열광했다**(x,s)]
e. 민호는 일찍 일어난다.
f. **GEN**s[**in**(**민호**,s)][**일찍.일어난다**(**민호**,s)]
g. 소방수가 가용하다.
h. ∃x,s[**firemen**(x) & **available**(x,s)]
i. 태풍은 태평양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j. **GEN**x,s[**typhoon**(x) & **C**(x,s)]∃y[**this.part.of.the.Pacific**(y) & **arise.in**(x,y,s)]
k. 태평양 이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한다.
l. **GEN**x,s[**this.part.of.the.Pacific**(x) & **C**(x,s)]∃y[**typhoon**(y) & **arise.in**(y,x,s)]

소위 양화적인 접근법은 이러한 다양한 예문들의 설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총칭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예문들의 설명에도 유용하다. '는'-구성성분이 결여된 채 '가'-구성성분만 나타나는 문장은 총칭문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5) a. 아이는 논다.
b. ??아이가 논다.
c. 아이는 놀이터에서 논다.
d. 놀이터에서는 아이가 논다.
(26) a. 소방수는 성실하다.
b. ??소방수가 성실하다.
c. ??집에서는 소방수가 성실하다.

(25)은 장면-층위 술어의 경우인데, (25a)는 총칭문으로 쓰이지만 (25b)는 총칭문으로 쓰이지 못한다. 총칭문이 되려면 삼부구조의 제한자가 적절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25b)는 는-구성성분이 없어서 제한자가 비게 되어 총칭문일 수 없다. 반면 (25d)는 (25b)에 '놀이터에서는'이 첨가된 문장인데, 이 부분이 제한자로 할당될 수 있어서 총칭문이 될 수 있다. (26)의 경우는 개체-층위 술어를 가지고 있어서 총칭문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데, (26b)에서는 제한자를 채워줄 요소가 없어서 어색한 문장이다. (26c)처럼 는-구성성분이 첨가되어도 여전히 어색한데, 이는 개체-층위 술어는 그 속성상 장소어구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에도 같은 이유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문장들은 표면상 '는'-구성성분이 결여된 채 '가'-구성성분만 나타나지만 총칭문으로 사용되는 예들이다.

(27) a. (화재가 나면) 종이 울린다. (Carlson 1995)
b.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 거지가 추워한다. (이현우 1995)

이 문장들이 총칭문으로 가능한 이유는 맥락상 화제가 존재 때문이다. 그래서 암묵적인 화제가 제한절을 채우고 '가'를 동반한 원형단수는 작용역에 할당되어 존재적 해석을 받는다.

4. 결론

한국어 총칭표현들의 분석을 위하여 총칭명사구와 총칭문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미표상에도 이러한 구별을 반영하여 총칭문과 총칭명사구가 총칭성을 얻는 절차를 분리하였다. 총칭문은 상황 변항에 대한 총칭양화사의 결속에 의해 총칭성을 얻고, 총칭명사구는 해당 명사구에 의해 도입되는 개체 변항에 대한 총칭양화사의 결속에서 총칭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면-층위 술어뿐만 아니라 개체-층위 술어도 상황 변항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총칭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화제표지와 주어표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양화적인 힘을 동반하는 표지라기보다는 삼부구조의 분할에 참여하는 표지로 처리하여 관련된 여러 종류의 예문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끝으로 한국어의 총칭문은 화제구문의 일종이며 그 화제는 맥락에 의해 생략될 수 있음을 보였다.

참고문헌

강범모.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 1-24.

곽은주. 2002. Structural Relations in Korean Discourse Generics. 언어 27-1: 25-46.

박철우, 이정민. 1996. "국어의 총칭 표현에 대하여."

이성범. 1994. "관계절 명사구의 총칭적 의미 분석." 어학연구 30-1: 25-40.

이영헌. 1984. 한국어 양화사 연구. 한신문화사.

이익환. 1992. A Qunatificational Analysis of Generic Expressions in Korean. *Proceedings of SICOL '92*: 1024-1035.

이정민. 1989. (In)definites, Case Markers, Classifiers and Quantifier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이정민. 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초점." 국어학22: 397-424.

이정민. 1996. Generic Sentences are Topic Constructions. In T. Fretheim and J. Gundel eds., *Reference and Referent Accessibility*: 213-222. John Benjamins.

이현우. 1995. The Semantics of Bare NPs and Genericity in Korean. 어학연구 31-4: 615-637.

전영철. 1997. *Syntax-Semantics Interface of Genericity*. Ph.D. dissertation. Indiana U.

채완. 1984. "화제와 총칭성, 특정성, 한정성." 유창균박사 회갑기념논문집: 743-755.

Carlson, G.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D. dissertation. U. of Massachusetts.

Carlson, G. 1989. On the Semantic Composition of English Generic Sentences. In G. Chierchia, B. Partee, and R. Turner eds., *Properties, Types, and Meaning vol. II*: 167-192. Dordrecht: Kluwer.

Chierchia, G. 199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s Inherent Generics. In G. Carlson and F.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176-223. U. of Chicago Press.

Cohen, A. and N. Erteschik-Shir. 2002. Topic, Focus, and the Interpretation of Bare Plural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0: 125-165.

De Swart, H. 1991. *Adverbs of Quantification: A Generalized Quantifier Approach*. Ph.D. dissertation. U. of Groningen.

Diesing, M. 1992. *Indefinites*. MIT Press.

Herburger, E. 2000. *What Counts Focus and Quantification*.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36. MIT Press.

Kratzer, A. 1995. Stage-Level and Individual-Level Precates. In G. Carlson and F.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125-175. U. of Chicago Press.

Krifka, M. et al. 1995. Genericity: An Introduction. In G. Carlson and F.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1-124. U. of Chicago Press.

Parsons, T.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MIT Press.